



국가무형유산인 '2026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영광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과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법성포 단오제 융합제 행사 모습.



사진제공=영광군청

'500년 전통' 영광법성포단오제, 18일 팡파르

국가무형유산인 '2026 영광법성포단오제'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영광 법성포단오제전수교육관과 법성포뉴타운 일원에서 열린다.

영광법성포단오제는 매년 음력 5월 5일 단오를 전후해 열리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 축제다.

지역 고유의 제전문화를 간직한 국가무형유산으로, 전통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전국 단위 축제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 축제는 '화조풍악(花鳥風樂)'을 주제로, 국가무형유산 지정행사와 현대문

화콘텐츠를 결합해 전통과 감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난장뜨기, 국악경연대회, 용왕제, 선유놀이 등 국가무형유산 지정행사를 비롯해 산신제, 당산제, 단오제 씨름대회, 전국 연 날리기대회, 단심줄놀이, 강강수월래, 창포머리감기,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지역 청소년과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도 확대된다. 청소년 공연 '단오축제 꿈'을 비롯해 퓨전국악 공연, 지역예술단체 무대, 단오풍물 버스킹, 국악 연희극 등

'화조풍악' 주제...지역 특산품·공연·체험 한마당 편의시설 강화...K-뮤지컬페스티벌 등 볼거리 풍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공연이 축제 기간 내내 이어질 예정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K-뮤지컬페스티벌 '심'도 눈길을 끈다.

대중가수 공연과 댄스·록 공연 등이 펼쳐져 젊은 세대와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측은 야간 공연과 감성형 콘텐츠를 강화해 체류형 축제로서의 매력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축제 공간 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단오마당과 축제마당 외에 먹거리와 공연, 체험,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난장마당'을 새롭게 조성한다.

난장마당은 감성 포토존과 푸드트럭존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DJ 공연과 다양한 먹거리, 휴식 공간이 마련된다. 또 지역 특산물 홍보·판매 부스와 단오사진전 '꽃 피고 새 울고', 다문화 의상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강화된다.

스텝투어 '한눈에 둘러보는 법성포단오제'를 비롯해 무료 사진 인화 키오스크, 생활안전 체험, 어린이 놀이터, 휠체어·유모차 대여소, 모유수유실 등이 운영될 예

정이다.

축제 개막식은 18일 오후 6시 30분 법성포뉴타운 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이어 개막 축하공연 '오백년의 흥, 천년의 소리'가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영광군 관계자는 "올해 법성포단오제는 전통과 현대, 세대와 문화를 잇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며 "500년 역사를 간직한 단오제의 흥과 정취를 전국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98@gwangnam.co.kr

지역 고유 문화자원 활용해 아이들 '정서적 놀이'

나주문화재단, 가족 예술교육 프로그램 '호응' 잠업문화 모티브 기획...유아 정서적 교감 커져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유아 문화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적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 만들기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최근 과거 가가호호 누에를 키워 명주실을 생산했던 나주의 잠업문화를 모티브로 기획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꿈트리의 용기'를 진행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누에의 생애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두려움과 용기, 기다림 등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최근 3년 연속 출산률 상승으로 인해 함께 확대되고 있는 유아 문화정책 수요에 맞춰 아이들의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정서적 연결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프로그램에는 6~7세 자녀를 둔 15가정이 참여해 누에 캐릭터 '꿈트리'의 성

장 여정을 따라가며 다양한 예술 놀이를 체험했다.

교육은 지난 5월 9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나빌레라문화센터 소극장과 다목적실에서 진행됐다.

1회차에서는 실을 활용한 오감 탐색과 공동 놀이를 통해 예술적 감각을 키웠으며 2회차에서는 가족의 고치집을 만들고 서로의 공간을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마지막 3회차에서는 대형 보자기 안에서 자신만의 날개를 만들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비가 돼 날아보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해방감과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 단위 참여 형태로 운영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예술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



'꿈트리의 용기'에 참여한 가족들이 실과 고치집을 활용한 예술 놀이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제공=나주문화재단

번 프로그램은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예술적으로 재해석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가족이 함께 문화에

담양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 개시

숙박·식음료·체험 등 49개 가맹점 할인 혜택 제공

담양군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디지털 관광주민증'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했다.

8일 군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여행정보 포털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또는 앱에서 담양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은 방문객은 지역 내 숙박, 식음료, 관광, 체험, 쇼핑 등 5개 분야 총 49개 업소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호텔 드림포드 숙박료 할인(평일 15%·주말 10%) △딜라이트 △담양항공 체험료 할인(코스별 30~35%) 등이 대표적이다.

혜택 제공업체 및 할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인구 감소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4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참여업체 정보 등록과 쿠파(QR) 인식 장비 설치 등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를 저질 없이 마쳤다.

군은 앞으로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매력 있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관광객들의 담양 방문과 지역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담양만의 특색 있는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바다의 불로초' 완도산 건다시마, 37만 생산

군, 양식 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 등 추진

완도군은 다시마 주산지로 지난해 기준 37만5000t의 다시마를 생산했다. 이는 전국 다시마 생산량(56만여t)의 66%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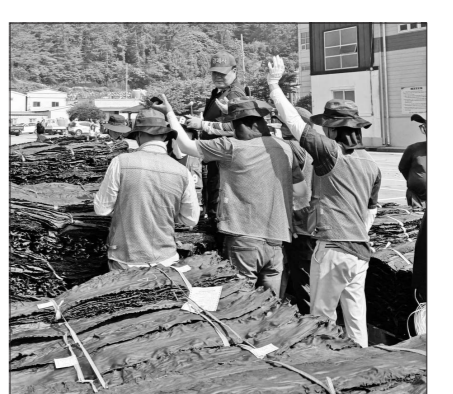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금일수협 건다시마 위판장에서 2026년산 건다시마 첫 위판이 이뤄졌다.

위판 가격은 최고가 9700원, 최저가 5500원, 평균가는 7289원으로 형성돼 총 1억9000만원의 위판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첫 위판 대비 위판량은 50.6%, 위판액은 32.1% 증가했으나 평균 단가는 1023원 하락했다.

건다시마는 완도 금일읍을 비롯해 신지면, 약산면, 생일면을 중심으로 7월 초까지 수확·건조 작업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도 '인중 부표 보급 지원', '양식 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 등을 추진하여 고품질의 다시마 생산 및 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지난 5월 27일에는 조매식과 풍작 기원제가 열려 다시마 생산 어업인들과 함께 건다시마 풍년과 안전 조업을 기원했다.

'바다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완도 다시마는 청정 해역에서 자라 특유의 깊은 맛과 풍부한 향을 자랑한다. 특히 요오드, 미네랄, 식이섬유 등이 풍부해 건강에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곡성,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시동'



104곳 참여...마을당 500만원 지원

곡성군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의 색깔을 바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마을을 아름답고 청정하게 가꾸어 나가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잠재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청정 자원을 보존해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군은 올해 으뜸마을로 선정된 104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당 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된 사업비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을 환경 정비, 벽화 그리기, 꽃밭 조성, 마을 진입로 정비, 쉼터 조성 등 각 마을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수립부터 집

행까지 전 과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주민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필요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무너져 가던 마을공동체 의식을 견고히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연말에는 우수마을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 으뜸마을 사업은 단순히 마을의 외형을 바꾸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함께 맘 흘리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